FX Market Daily

2026-01-08

전일동향

전일대비 0.40원 상승한 1,445.80원에 마감

7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0.40원 상승한 1,445.8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3.10원 높은 1,448.50원에 개장했다. 결제수요의 지속으로 환율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상단 경계감에 더해 외국인 대규모 주식 매수는 상승 흐름을 억누르며, 1,445.8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4.3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2.19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48.50	1449.90	1445.60	1445.80	1448.30
엔화	922.71	926.31	922.06	922.19	-
유로화	1689.25	1696.70	1688.19	1688.45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22	-4.62	-9.83	-18.23
결제환율(수입)	-0.55	-3.49	-7.76	-14.72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강달러 영향권 지속에...1,44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4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445.80) 대비 4.00원 상승한 1,448.4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강달러 영향권 지속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밤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 호조에 상반기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의 유입으로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12월 ISM 서비스업 PMI는 54.4를 기록하며 전망치를 상회한 것과 더불어 전월 대비로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독일 11월 소비판매는 전월대비 0.6%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 독일을 비롯한 주요 유럽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유로화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11월 미국 구인건수는 714.6만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했으나, 해고건 역시 16.3만건 감소하며 고용시장 연착륙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아울러 수급 측면에서 달러 매수 우위가 지속되며 환율 상승 압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수출업체 고점매도 부담과 당국 미세조정 경계감은 환율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는 당국의 노력은 역외 롱심리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44.40 ~ 1453.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2547.72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00원↑

■ 美 다우지수 : 48996.08, -466p(-0.9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0.8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096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